



가톨릭 청년성서모임 가족들을 위한 신흥 이단 신천지 예방교육



가톨릭청년성서모임

서울대교구장 영수정 안드레아 대주교님께서 밝히신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새로운 복음화의 원동력”으로 많은 청년 신자들에게 신앙의 빛과 희망의 기쁨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최근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잘못된 교리로 가톨릭 신자들을 현혹시켜 혼란에 빠뜨리는 신흥 이단 ‘신천지’의 활동이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성장과 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톨릭 청년성서모임도 더 이상 이러한 신천지의 무차별적인 침입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특히 철저하게 훈련된 신천지 조직원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접근했을 경우 우리에게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구 사목국 신부님들과 성서가족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청년성서 가족들을 위한 신천지 예방교육 자료는 만들었습니다. 이 ‘알림글’을 보내는 목적은, 우리 가톨릭 청년성서모임 가족들이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미리 경계의 마음을 갖도록 하여, 신천지 이단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찬찬히 읽어보고 잘 숙지하여 교회와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말씀의 해”를 맞이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이 우리 가톨릭 청년성서모임 가족들의 마음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 청년성서모임

대표 지도 신부 유인창 안사노

1. 신천지 기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줄여 신천지라 한다. 신천지교회의 대표인 이만희는 경북 청도군에서 1931년에 태어났다. 청년시기에 전도관 박태선의 신앙촌에 머물다가, 유재열이 1967년에 창립한 ‘장막성전’이라는 신흥종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장막성전’에서 재산을 모두 잃고 탈퇴한 후 귀향하여 농사를 짓다가 장막성전이 와해된 뒤 그 일원이었던 백만봉이 1978년 재창설한 재창조교회에 입교하여 12사도 조직의 하나로 활동하였다. 백만봉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 설교하며 1980년 3월 13일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였지만 아무 일도 없자 이만희는 탈퇴한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14일에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규합해 경기도 안양에 ‘신천지 중앙교회’를 설립했다가 1984년 3월 14일 안양시 비산동에 ‘새증거장막’이라는 지금의 신천지 교회를 시작하였다.

2. 신천지 주요 교리

교주인 이만희는 자신이 이 시대의 구원자로서 영생을 누릴 것이고, 신천지 교회 신도들이 요한묵시록에 언급된 144,000명을 신천지 신자로 채우면 신천지(新天地, 새 하늘 새 땅)가 시작될 것이며, 144,000명 모두가 육으로 영생한다고 가르친다. 시대별 구원론으로 각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고 현혹시킨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셨고, 지금은 이만희 자신이 구원자이니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3. 신천지 성경 비유풀이의 문제점

성경이 모두 비유로 설명되어 감추어져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오직 교주 이만희만이 성경을 다 이해했다고 가르친다. 이는 이만희가 거쳐 온 다른 이단종교들에서 이미 사용했던 방법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한 방식이다.

성서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요한묵시록은 묵시문학으로 상징을 많이 사용하는데 144,000명 역시 실제 숫자가 아닌 상징적인 숫자이다. 이스라엘 12지파와 민족들의 총만을 나타내는 12, 하느님 영역에 속하는 완전수 1,000이 결합된 숫자이다. 즉 셀 수 없이 많은 백성이 하느님의 구원을 얻을 것을 상징하는 숫자이다. 그런데 신천지는 144,000명이 실제 숫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신천지는 모든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비를 감추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는 지상의 사람들이 알 수 없기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신천지의 '성경 비유풀이'란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게 되면 이만희의 신격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전인수식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경의 내용을 변형 시키기는 그릇되고 거짓된 행위에 불과하다.

4. 신천지의 접근방법

신천지는 훈련된 '추수꾼'(섭외자)을 통해 전략적으로 개인에게 맞춤형 접근한다. 기존의 친분을 활용하거나 성당, 대형마트, 문화센터, 복지단체, 화장품 외판원, 보험설계사, 침술, 건강식품, 학습지, 음악 레슨 등 외양을 가리지 않고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심지어 최근에는 구역 반장, 사목회, 레지오 등에 침투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요직을 차지하려고 한다. 신자들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얻은 이들은 포섭 대상자들의 정보를 신천지 측 제3의 인물에게 넘겨주고 제3의 인물들과 함께 포섭한다. 개인적인 친분을 충분히 쌓은 후에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한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쉽게 현혹될 수 있다. 섭외대상자를 A, B, C 급으로 나누는데 C급으로 섭외에서 제외되는 이들은 60세 이상, 궁핍자, 성직자, 신학전공자, 성직자 가족 등이다. 그리고 신천지 신자라는 자신의 정체기가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바로 잠적하며 정체기가 노출되지 않은 다른 신천지 신자를 투입시킨다.

5. 신천지 교육단계

- 1) 복음방 인도 단계 -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단계. 약 2개월. 친분을 충분히 쌓은 뒤 성경공부를 제안해서 복음방으로 이끈다.
- 2) 복음방 단계 - 기존의 성경 지식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성경 비유풀이' 방식으로 교육하는 단계. 장소는 가정, 여러 센터, 카페 등에서 진행. 약 3개월. 특징은 입단속을 시킨다는 것. 이때 인용하는 성경은 '발에 숨겨진 보물'(마태 13,44).
- 3) 신학원 단계 - 초급, 중급, 고급 교육으로 총 6개월 과정. 신학원 단계에서 요한 묵시록 풀이를 하는데 이때 이만희가 메시아임을 가르친다. 이미 세뇌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무비판적으로 쉽게 이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시험으로 일정 점수를 넘으면 합격시키고 2개월의 새신도 교육 과정을 거쳐 침투포교를 하는 추수꾼으로 활동하면서 신천지 신자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6. 신천지에 빠진 사람의 특징

갑자기 성직자와, 수도자에게 거리를 두고 불만을 자주 표현한다. 몇 개월간 성당에 나오지 않던 신자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 열심히 활동한다. 자신의 집이나 연락처를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신부님의 강론과 성경지식, 그리고 교회의 교리에 은근히 불만을 터뜨린다. 청년회, 구역, 성가대에 갑자기 나타나 열심히 두각을 나타낸다. 성경을 비유로 풀며 대화 중 씨, 밭, 나무, 새, 기름, 등불, 배교, 멸망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성모님을 그냥 '마리아'로 호칭하고 이웃집 여자 취급한다.

7. 청년성서모임 입장에서의 신천지의 위험성

성서모임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경 공부를 목적으로 그룹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신천지 신자가 그룹공동체에 침투하여 좋은 성경 공부모임이 있으니 함께하자고 권유하면 응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그룹원 뿐 아니라, 그룹봉사자의 입장에서든 처음에 그룹원들을 대할 때에는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함께 하자는 신천지 그룹원의 요청을 거절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신천지 추수꾼들이 구역장이나 반장 등 공동체의 요직을 차지하던 것처럼, 그들이 연수를 마치고 또 다른 그룹봉사자가 되었을 때 자연스러운 그룹공부의 과정인 것처럼 그룹원 전체를 그들의 모임으로 끌어낼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룹공부 중에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모임에 참여하자는 그룹봉사자, 그룹원이 존재한다면 바로 센터 신부님, 수녀님께 (말씀의 방: 02-764-6452) 연락하여 참가해도 괜찮은 모임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

8. 최근 사례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이유는, 신천지가 개인과 가정, 사회 및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신앙의 최종목표인 구원에 대한 논의를 심하게 왜곡하기 때문이다. 이만희 자신도 박태선 장로의 신앙촌에 들어갔다가 재산을 탕진한 것처럼, 신천지 신자들은 무리한 헌금을 강요받고 있고 그로 인하여 자신 뿐 아니라 가까운 이들에게도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결국 신천지 이단의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도들의 희생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일만이 지상과제일 뿐이다. 더 큰 피해는 구원에 대한 허황되고 이기적인 주장을 펴서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혼에 심각한 오해와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신천지 이단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여 자신과 친지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가톨릭 청년성서모임과 봉사자에게 신천지 신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접근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 1) A대학교 청년성서모임에서 이번에 새로 모집된 그룹 안에 신천지 신자로 추정되는 그룹원이 예비자 그룹원을 신천지 예배당으로 추정되는 곳에 데리고 가 함께 공부를 하자고 하였다. 의혹을 느낀 예비자 그룹원이 의심을 제기하자 현재 해당 그룹원은 잠적한 상태이다. 하지만 그룹공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는 꼭 가고 싶다며 그룹봉사자에게 연수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이다.
- 2) B대학교에서도 최근 신천지의 출현이 잦다고 한다. B대학교 성서모임 말씀의 봉사자에게 설문지에 답해 달라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후, 신천지로 추정되는 활동을 함께하자고 한 사례가 있다.
- 3) 본당에서도 신천지 신자가 단체의 요직을 꿰차고 혼란을 가져온 사례가 있다. C본당의 경우 신천지 신자가 성가대에 들어가서 단장 및 지휘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실세가 되어 성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일이 있었다.

9. 신천지에 대한 예방

- 1) 교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준한 성경 공부만을 참석해야 한다.
(서울대교구 공인 성경프로그램 : 가톨릭 청년성서모임, 성서못자리, 가톨릭성서모임, 성바오로교육관 바오로성서모임, 성서백주간, 성바오로말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여정성서모임, 베네딕도 성서학교)
- 2) 가톨릭 청년성서모임 그룹공부, 기도모임 외에 의심이 가는 성경공부 및 나눔, 사적 기도 모임은 삼간다.
- 3) 그룹공부 도중 위에 나타난 신천지 신자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성경공부, 기도모임에 함께 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센터 신부님과

(말씀의 방: 02-764-6452) 대표봉사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 4) 교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설문은 개인정보를 얻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다.
- 5) 의심스러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처음에 MBTI검사, 성격분석, 미술치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모인 젊은이, 여러분이 교회’인 가톨릭 청년성서모임의 정신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올바른 신앙과 뿌리 깊은 신앙을 위해 열심히만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성경과 교리를 알고 그릇된 것은 조심해야 함을 늘 기억해야 하겠다. 2014년 교구장님의 사목교서의 주제가 ‘하느님 말씀은 새로운 복음화의 원동력’이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알도록 노력해야 하되, 반드시 성당 혹은 교구 인준 교육프로그램인지 확인하고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겠다.

가톨릭 청년성서모임 대학 대표모임 작성

| 연락처 | |
|-----------|-------------|
| 말씀의 방(센터) | 02-764-6452 |
| | |